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6.11.(화) 14:00	배포	2024.6.11.(화)		
담당부서	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검사팀	책임자	국 장	이현덕	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	조강훈	(02-3145-8323)

금융감독원,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

-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함께 최초로 실시하는 내부통제 워크숍
-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두터운 이용자 보호와 시장신뢰를 제고할 계획

I. 워크숍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4.6.11.(화) 14시,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
 - 동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(가상자산법)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으로
 - 사업자(28개사)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,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(DAXA)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
- 금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('24.7.19. 예정)과 함께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
 -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, 시장·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,
 -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,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하였음

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요

- ✓ (일 시) '24.6.11.(화) 오후 14:00 ~ 16:40
- ✓ (장 소)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
- ✓ (참석자)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준법감시인, DAXA 등 약 80명

II.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

1.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 모두 발언 요지

- 금융감독원 김병철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
 -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며,
 -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,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·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
 - 아울러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·준수하여야 하며,
 - 각 사업자는 경영진·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·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

2. 금융감독원 주요 발표 내용

- ① (컨설팅 결과)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컨설팅*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주요 준비 미흡사항을 설명하는 한편,
 - * '24.2월~4월까지 현장컨설팅 희망 사업자(15개 거래소)를 대상으로 실시
 -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내용,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차질없는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
- ② (모니터링 체계) 감독당국의 시장·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제출 협조 등을 요청

3. 업계 주요 발표 내용

① (가상자산 보관) 고객 가상자산 이전·보관 관련 내부통제체계*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 우수 사례 발표

* 고유·고객 가상자산의 분리보관(지갑분리), 콜드월렛(월렛룸, Private Key 등) 관리, 가상자산 이전 관련 통제 절차(전자서명 방식 등) 등

② (이상거래 감시 등)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및 담당 조직 구성이 완료된 사업자의 구축 사례 등*을 공유하는 한편

* 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, 시스템 가동 시뮬레이션 및 시범심리 진행

- 거래지원 관련 조직의 독립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규정비 사례 및 운영방안(외부 전문가 참여,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보장 등)을 발표

③ (내부통제기준* 등)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 자체 내규 등에 반영을 권고

* DAXA에서 가상자산업계의 특성, 법령상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기준 마련

III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번 워크숍을 통해 법규 이행 준비현황, 우수 준비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,

-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

-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며,

-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